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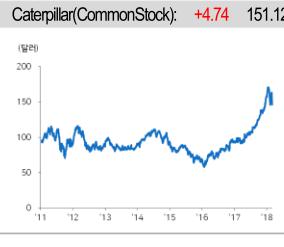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329.4	18.3	123,500	-5.7	-6.4	-15.5	28.7	86.1	41.3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864.8	21.4	421,500	-1.1	-5.4	1.6	10.6	5.7	4.7	0.8	0.7	14.1	14.7
현대알렉트릭	875.7	7.0	85,800	-1.8	-30.5	-29.1	-24.7	8.1	7.1	0.7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19.7	8.8	164,000	-1.8	-15.0	-13.7	-3.0	10.4	7.7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213.6	18.4	8,240	-0.1	-10.4	-34.6	12.4	52.0	258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522.4	5.1	23,650	-3.7	7.5	29.9	70.1	10.0	9.0	0.6	0.5	5.6	6.0
현대미포조선	2,050.0	13.1	102,500	-3.8	-3.3	3.7	30.2	22.1	16.0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41.0	6.8	3,215	-2.3	-10.2	-15.4	-2.9	64.7	16.1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91.7	36.5	56,500	-1.6	-5.2	6.6	3.9	10.0	9.7	1.4	1.2	14.6	13.3
두산밥캣	3,203.0	27.3	31,950	-3.8	-10.5	-11.3	-10.8	11.7	11.0	0.9	0.9	7.4	7.6
현대로템	1,338.8	25.2	15,750	1.9	-2.5	-18.6	-16.0	20.3	13.8	0.9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13.1	48.0	23,000	-3.8	-12.7	-4.3	22	104	95	0.9	0.8	8.8	9.0
성광밴드	328.9	15.8	11,500	-3.4	-6.1	7.5	152	1,016.6	412	0.7	0.7	0.1	1.8
태광	369.7	16.1	13,950	-3.5	0.0	17.7	15.8	83.3	40.7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549.0	9.7	14,550	-0.7	-7.6	-17.1	-5.2	12.0	9.0	0.5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1,933.6	14.4	9,290	2.2	-12.8	-24	6.9	8.1	7.3	0.9	0.8	11.6	11.7
두산엔진	299.5	4.2	4,310	-2.3	3.0	-17.7	17.0	-141.5	43.5	0.6	0.6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800.6	17.6	49,250	0.7	0.6	-2.3	3.8	33.2	23.5	3.7	3.3	11.2	14.2
한화테크윈	1,446.5	13.1	27,500	-1.4	-12.4	-20.6	-22.6	21.0	13.6	0.6	0.6	3.1	4.4
LIG넥스원	1,052.7	10.8	47,850	1.3	-11.9	-17.9	-20.0	18.8	13.4	1.6	1.5	8.8	11.4
태웅	390.1	3.2	19,500	-5.1	-12.0	4.8	0.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9.4	4.6	8,500	-3.2	2.2	56.5	68.3	-354.2	503	25	24	-0.7	5.0
한국카본	282.7	16.1	6,430	1.1	-8.1	13.3	20.0	48.0	332	0.9	0.8	1.8	2.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 LNG선 2척 수주…누적수주 29척 · 20억불

현대중공업은 5일 유럽선사에서 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힘. 선가와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현대중공업은 올해 지금까지 20억달러 수준의 선박 29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회사 관계자는 최근 조선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발주를 결정하는 선주들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EBN)

채권단 "성동·STX조선 법정관리 외 대안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채권단은 삼정KPMG의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두 업체가 신규자금을 투입해도 회생가능성이 낮아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짐. 반면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을 설득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LNG 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파고

2020년이 되면 미국은 매월 17건의 LNG를 수출하며, 추가로 24건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짐. 현재 6개의 신규 LNG 플랜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짚고, 최근 Cheniere와 중국 바이어 및 Trafigura 간 계약에서도 그랬듯, 향후 LNG 구매계약은 2~3년 수준으로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Hyundai and Samsung grab LNG orders

현대중공업은 유럽 선사에서 LNG선 2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18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양 조선사의 자세한 계약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음. 확실치는 않으나, 삼성중공업이 지난주 TMS Cardiff Gas에서 수주한 17.4만CBM급 LNG선 1+1척 계약과는 별도로 신규 수주했을 가능성이 높음. (TradeWinds)

두산밥캣 "차입금 이자율 낮춰 올해 600만달러 절감"

두산밥캣은 총 12.4억달러(1.3조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0.05%p 인하해 올해만 6백만달러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 재조정 건을 포함해 10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총 1.81%p 낮춰 전체 금융비용 절감은 연 2.4천만 달러로 알려짐. 또 사측은 2020년 기준으로 순현금 기조를 전망함. (연합뉴스)

VLCC newbuilding orderbook hits 100 ships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VLCC를 수주하면서 글로벌 VLCC 수주잔고가 100척에 달했다고 알려짐. Clarksons Research Services에 따르면 수주잔고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2척, 현대중공업 20척, 현대삼호중공업 8척, 삼성중공업 4척, 중국 Dalian 조선 17척, 일본 JMU 10척 등으로 알려짐. (TradeWinds)